

목차

1. 1차 (점수 82.67 점+2.67)

-들어가기 전에

- 1) 1월~3월: 대추 한 알,
- 2) 4월~6월: 저게 저절로 붉어질 리는 없다.
- 3) 7월~9월: 천둥 몇 개, 번개 몇 개
- 4) 10월~11월: 붉게 익어가는 대추
- 5) 1차, 그리고 그 후

2. 2차 (점수 89.63 면접:-4.37 수업실연:-6)

- 1) 2차준비
- 2) 2차복기
- 3) 질문정리

총점: 172.3

높은 점수는 아니지만 1차 칼채 점수와 물채점수가 비슷한 케이스이기도 하고
2차에서 뒤집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서 이렇게 합격 수기를 올립니다.

-들어가기 전에 ‘스스로에게’

먼저 합격수기를 쓸 수 있도록

아침마다 2면 동안 따뜻한 도시락을 싸주시던 우리 엄마에게 감사하며,

공부하는 딸 방해할까 조용히 숨죽이시며 집에 계시던 아빠에게 감사하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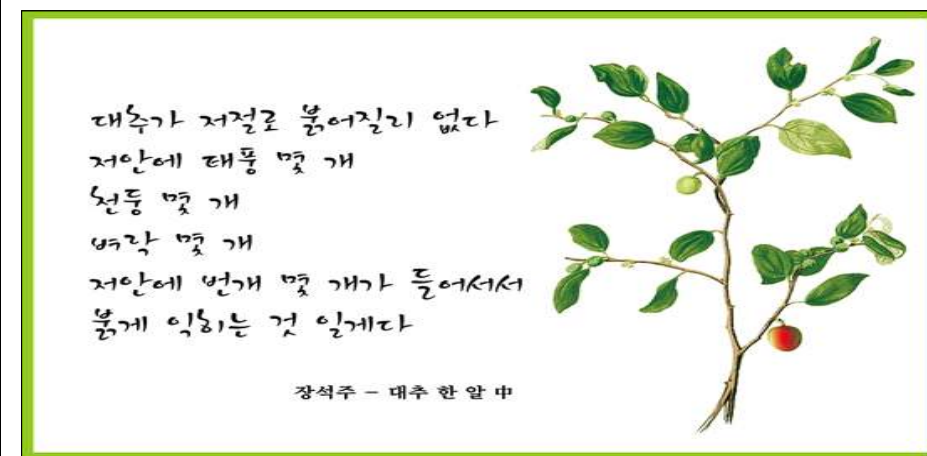
누나 공부 방해 할까..... 는 걱정도 안하는 내 술 친구 동생에게 감사한다.

스트레스 받지 않게 눈치보고 테이트 하며, 항상 내 옆을 지켜준 든든한 남자친구에게 감사한다.

그리고 끝까지 나를 놓지 않는 ‘나’ 에게 감사한다.

잊지 말자 간절함을, 더 따뜻한 교사가 되기로 한 이 순간들을..

-들어가기 전에 ‘다시, 혹은 새로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저는 재수를 했어요. 재수를 시작하고 우연히 이 글귀를 보게 되었어요.

너무 힘들었을 때여서인지 이 글귀는 저에게 힘을 주었어요.

이 안에 글귀처럼 내가 더 붉은 대추가 되기 위해서는

천둥, 벼락이라는 시험을 거쳐야만 성장할 수 있겠구나..

지금 이렇게 힘든 것은 더 따뜻한 교사가 되기 위한 과정들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지요.

시험을 준비하는 모든 선생님들이 더 붉은 대추가 되길 기원하며 합격수기를 한자 씁니다^^

초수에 1차에서 떨어졌어요. 고민의 시간... 1월

그래서 더 충격이 컸던 걸까요? 정신을 차려보니 1월이고 다시 공부를 할지 일을 할지 고민을 해야 했어요. 제가 이렇게 고민할 때 주변 사람들은 ‘해라or하지말아라’ 이렇게만 조언해주었어요. 하지만 이건 제 고민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고민이기 때문에 저에게 큰 도움이 되지 못했어요. 생각해보기 위해서 친구와 싱가포르로 1월에 여행을 떠났어요. 여행에서 머리도 식히고 고민을 하는 동안 친구의 조언이 저에게 결정을 하게 된 계기가 되었죠. 자꾸 고민하는 저에게 ‘너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생각해봐’ 그래서 적어보았어요. 내가 하고 싶은 것, 해야 할 것.. 이렇게 적어보니 재도전을 위한 리스크.. 그것들을 감수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되었고, 결론은 떨어져도 괜찮아. 다시 해보자라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지금도 고민하고 계신 많은 분들이 있으실거예요.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해보시고 차분하게 결정내리셨으면 좋겠어요.

#떠나기 전에 한국사 접수를 하고 떠났어요.

공부를 시작하려고 보니 한국사 기간이 애매하게 남아있는거예요.
(대학생 때 따고 3년간 사립에서 일하다 보니 기간이 5년이 딱 돼서 애매했죠..^^
안 따도 될 것 같긴 했지만 제가 재수로 붙을 수 있을까에 대한 의심으로.. 그냥 땀어요.)
1월에는 한국사를 보았어요. 여행을 다녀오니 한국사 시험이 4일이 남았더라고요..
부랴부랴 했어요.

여기서 막간의 tip

한국사 4일 공부하고, 2문제 틀렸어요. (중급이요^^)

비결은 기출에 있다고 생각해요. 혹시 한국사를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 방향을 잡지 못하신 분이라면 먼저 한국사를 훑어보세요. 정말 외우지 말고 잡지책 읽듯이 스르륵~~ 훑어보시고, 기출 10개년정도를 뽐은 후에 계속 풀으세요. 풀면서 암기하시고, 해설을 보면서 이해하신다면 짧은 시간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을거라고 생각해요.^^ (해설지가 정말 중요해요! 해설지 꼼꼼하게 읽어보세요!)

#아팠던 시간.. 2월~3월

한국사를 보고 나서 공부를 시작했어요. ‘초수의 마음으로 개론 강의부터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잡았어요. 그런데...이상하게 책만 펴면 눈물이 나더라고요. 너무 아팠어요. 내가 1년의 시간을 버렸는데 다시 도서관 책상에 앉아있고, 바깥에 날씨는 너무 춥고..또 공부해서 붙을까..책을 덮고 일을 알아보았어요. 심지어 사립 면접도 봤어요. 사립 면접을 보는데 ‘아..이건 아니다..’ 생각하고 다시 마음을 다 잡았어요.

또 다시 책을 펴서 눈물이 나면 나는 대로 울고, 집중이 안되면 안 되는대로 마음을 내려놓기로요...그냥 마음을 내려놔요. ‘그래, 나 속상해. 또 안되면 삼수하지 뭐, 괜찮아 괜찮아..’

그렇게 2월동안 마음을 다잡으면서 멘탈회복과 개론을 공부 했어요.

‘그래! 나는 대추 한 알이다! 붉게 되기 위해 비, 바람, 천둥 다 이겨내자!’

#공부방법 : 숲 그리기

혹시 ‘숲을 먼저 그리고, 그 다음 나무를 그리세요.’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제가 1차에 떨어졌더니 저의 문제점은 나무만 그리는 것이었어요. 아마 지금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도 이와 같은 모습이 보일 수도 있어요. 다음과 같은 행동을 보이시면 ‘내가 지금 나무만 찾고 있구나...’ 라고 생각해주세요.^^

1. 나는 지금 (2월) 다른 사람보다 열심히 하고 있다.

- ‘비교’하지 마세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는 순간 자만심으로 나타나요. 나는 저 사람보다 벌써 책을 한번 더 읽었어. 저 사람은 이것도 안했는데, 나는 하고 있어. 그러니까 내가 붙을거야. 라는 생각은 버려주세요. 대신 나 스스로에게 질문하세요. ‘너 이거 정말 알고 있는거야?’

2. 나는 지금 암기도 하고 있다.

- 초반에 아무것도 외우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외워야되!’가 아니라 이해를 한 뒤에 주요한 개념부터 눈에 익히시고 그 다음에 살을 붙여서 넓혀나가신다면 기초가 탄탄해지실 거예요.

#운동 : 스트레스 탈출 구멍 만들기

초수에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서 그런지 간혹 공부하기도 싫고.. 의욕이 안생겼어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걸 찾아서 시작했어요. 저는 운동을 좋아해서 요가를 시작했지요.
아주 좋은 취미 덕분에 체력도 올라가고 군살도 빠지고
삶에 생기가 돋기 시작했어요. 운동은 7월까지 했어요. 운동은 사랑입니다.♥

숲 그리기 방법

-아래와 같은 사진은 완성본이에요! 어쩌다 보니 서브노트가 되어버렸네요.

간혹 공부하시는 분들이 서브노트는 언제부터 만들면 되는건지 물으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도 처음엔 이것을 서브노트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저는 전체 틀을 볼 필요가 있어서 만들었는데 막판에는 이것이 서브노트처럼 되고, 여기에 점점 추가+추가 하게 되었네요^^

완성본. 처음에 시작할 때 목차를 다 적고 시작했던 것이 아니라 맨 앞에 한 장은 건너 뛰고 시작했어요. 사상사가 다 끝난 뒤에 맨 앞으로 가서 목차를 만들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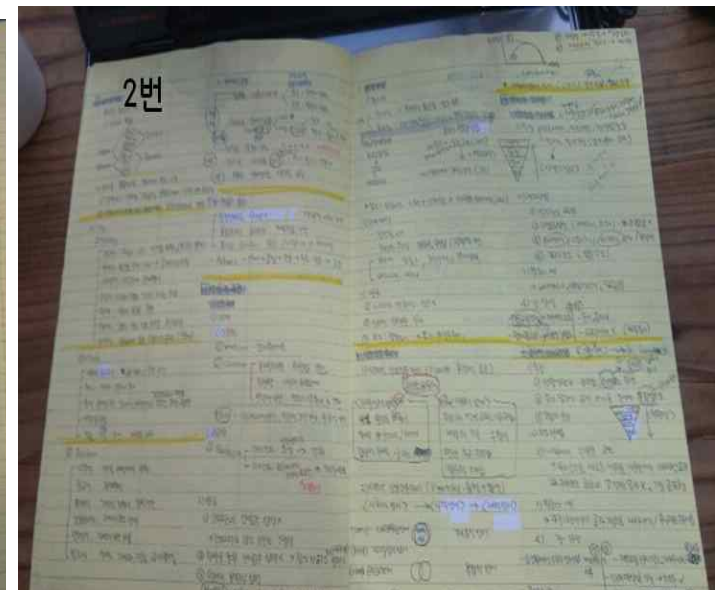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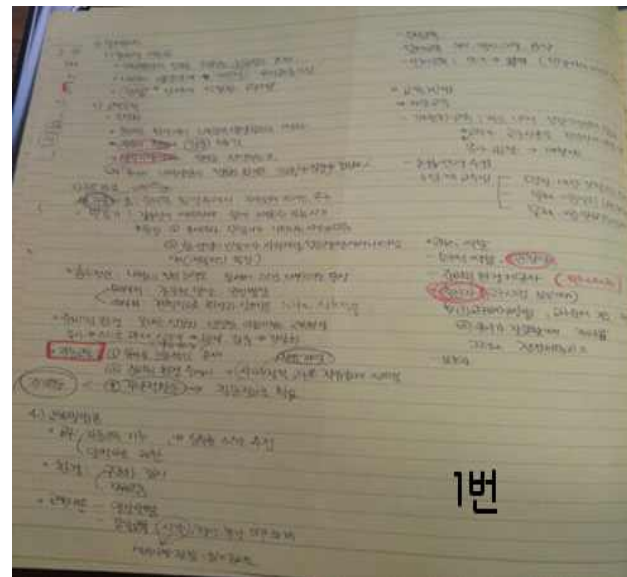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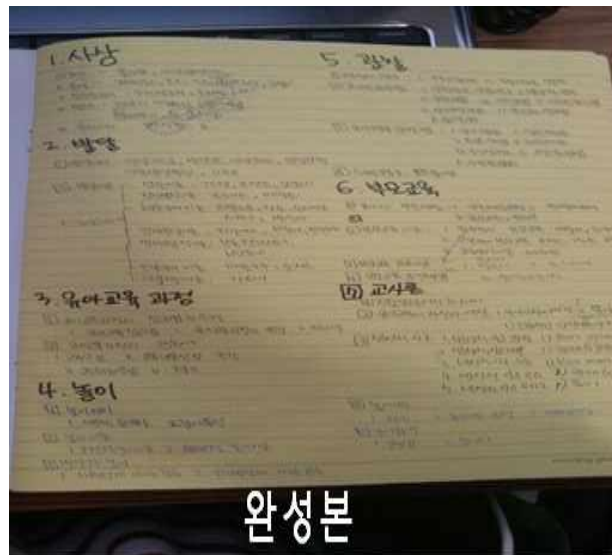
1번. 전체 내용을 한번 읽으면서 이면지에 책 구조에 맞게 제목-소제목-하위내용 등등 제가 보기 편한 저만의 구조를 만들었어요.

-> 책 읽기- 틀 만들어보기 - 책 읽기 - 틀 만들어보기를 3월까지 반복하면서 이제 내 머릿속에 들어왔다 싶으면 1번 사진처럼 공책에 정리했어요.

〈예습★〉 혼자 책 읽고 -> 틀 만들어보고 -> 강의 듣고 -> 〈복습★〉 다시 책 읽으면서 틀 만들어보고 -> 공책에 정리하기의 방법이에요!

★틀 만들어보기가 핵심이에요!

2번. 각론이에요 : 공부하면서 맨 뒷줄에도 필기하고 더 필요한게 있으면 채워서 나갔어요.



#4월~6월: 개론 마무리, 각론 시작

저는 민쌤을 들으면서 ‘아! 이게 나한테 맞는 강사님이구나!’라는걸 느꼈어요. 이전에는 느끼지 못한 경험이었어요.

왜냐하면 공부에 재미가 붙어지고, 민쌤 수업이 일주일에 한번씩 올라오는데 너무 재미있어서 아껴서(?) 볼 정도 였으니깐요...!! 어떤 분은 너무 어렵다고 하는데 저는 재수여서 그런지 오히려 깔끔하게 정리된 느낌이어서 가려운 부분을 시원하게 해결했어요!

그리고 학생들이 모르는 것 같은 표정일 땐 민쌤이 집에 가서서 문제, 예시 등등을 고민해서 다음 시간에 말씀해주시고, 따로 강의를 찍어서 올리시기도 하고... 민쌤 열정이 화면을 뚫고 나왔어요! 네, 저 이 수업을 시작으로 민쌤 쌤..가 된 듯 해요. 하지만 이유있는 것이니 혹시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스터디(1차 전일까지 했어요.)-해지서 문제내기&백지스터디는 매일매일!

각론을 시작하면서 해지서도 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내가 놓치는 개념들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스터디를 구했어요.

스터디원 4~5명이 하루에 한 문제씩 문제를 냈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 밀리지 않고 꾸준히 볼 수 있었고, 짜투리 시간을 잘 활용할 수 있었어요. (주로 도서관에 오며 가며, 짜투리 시간에 문제를 풀었어요.)

(기프티콘으로 강제성을 부여했지만, 모든 조원들의 활발한 참여로 기프티 콘을 내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아래 표는 스터디 원들과 해지서 내용 범위를 정했던 예시입니다.

♫ 해지 진도 ♫

- 1.누리과정 도입배경, 누리과정 제정, 구성방향
- 2.목적과 목표, 편성.운영
- 3.교수학습방법, 평가
- 4.신체운동건강 성격~신체인식하기
- 5.신체조절하기과 기본운동하기, 신체활동에 참여하기
- 6.건강하게 생활하기,안전하게 생활하기
- 7.의사소통 성격~듣기
- 8.말하기
- 9.읽기,쓰기

- 10.사회관계 성격~나를 알고 존중하기
- 11.나와 다른 사람의 감정 알고 조절하기, 가족을 소중히 여기기,
- 12.다른 사람과 더불어 생활하기,사회에 관심 갖기
- 13.예술경험 성격~아름다움 찾아보기
- 14.예술적 표현하기(음악~미술)
- 15.예술적 표현하기(극놀이~통합적),예술감상하기.
- 16.자연탐구 성격~탐구하는 태도 기르기
- 17.수학적 탐구하기
- 18.과학적 탐구하기

또한 이 스터디에서 백지쓰기도 했어요. 하루에 내가 공부한 부분을 자정까지 백지에 써보고 인증샷으로 올리면 되는거였어요. 분량이 정해진것도 아니고 편하게 써보는 것이라 부담도 느끼지 않았어요. 여기서 내가 못 채운 개념이나 써놓고도 이해되지 않았던 부분은 빨간색으로 표시해두어 다음날 공부할 때 보았어요.

#각론 공부방법

1. 각론도 개론과 마찬가지로 유목화하고, 목차도 만들어보는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책을 읽어나갔어요. 그리고 각론 시간에 민쌤이 주신 빈칸 자료들을 보면서 ‘내 것’으로 만들어 나갔죠.

-저는 화려한 형광펜이 싫어서 맨 처음엔 연필-검정펜-회색 형광펜- 파스텔톤 분홍 형광펜 - 이런식으로 매일, 매일 공부 시작 전, 산책시간등 자료를 읽었어요. 나중에 자료에 보이는 색만 봐도 ‘내가 이 자료는 덜 읽었구나, 다음에 산책할 때 한번 더 읽어봐야지’ 라고 생각하게 됐네요.^^

2. 산책하기

저는 걸으면서 암기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 었던 것 같아요.‘외울거야!’가 아니라 밥 먹고 소화시키기 위해 산책할 때 읽으면서 다니던게 기억에 오래 남더라구요^^

산책할 때는 주로 **민쌤 빈칸자료**나 저의 **암기카드**를 가지고 나갔어요.

암기카드는 별건 아니고 A4용지를 카드처럼 잘라서 공부를 할 때, 오늘 내가 배운 개념을 적었어요. 그리고 산책할 때 그 개념만 보고 어떤 내용인지, 목차에서는 어떤 부분이 었는지등을 생각하면서 걸었지요^^ 이 방법은 초반에 주로 하고 마지막엔 사용하지 않았어요.^^

#가족여행

4월에 제주도를 가족여행으로 주말을 꺼서 다녀왔어요. 다시 공부를 시작할 때 너무 힘들어서 ‘개론이 끝나면 내가 좋아하는 여행으로 상을 주자!’라고 생각했거든요.

나를 너무 다그치지 않고 칭찬해주며 제주도에 가서 여유를 즐겼어요.^^

그래서 그런지 개론을 할 때 ‘나는 여행을 갈거니까 더 열심히하자!’라고 생각하며

집중했던 것 같아요^^ 선생님들도 나에게 상을 주면서 공부하신다면

오랜 공부기간동안 힘을 얻으실거예요! 덕분에 집중의 매력에 빠지게 되었어요.

여러분 집중을 통해 몰입을 하면 공부에 재미가 붙으실거예요!

#스케줄

-평일엔 아래와 같이 시간대 별로 과목을 바꿔가며 공부했어요.

주말엔 오전에 민쌤이 열어주신 안전 강의+언어 강의등등을 듣고 정리한 뒤에 오후에 데이트 했어요~ 한참 5월은 가족과 갯벌에 폭 빠져서 조개 캐기도 했어요~

즉, 6월까지인 토요일 주말 오전까지만 공부하고 폭 쉬었습니다.^^

주말에 꼭 공부를 하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제 성격상 불안함을 느껴 오전에 못한 공부 1시간만 이라도 했습니다.^^

오전 : 8시 ~ 12시	개론 복습
점심 후	민쌤 자료/ 해지서
오후 : 1시~5시	각론 복습/ 예습
초 저녁 6시 ~ 8시	요가
저녁 9시~	저녁 먹은 후 강의 듣기
12시	꼭 12시 이전에 취침

#웹지도 반

꽃중의 꽃! 웹지도 반이 시작되었어요. 직강을 한번도 안 가봐서 직강을 가려고 했는데 빛의 속도로 접수가 끝나서 인강으로 들어있어요. (너무 아쉬웠답니다ㅠㅠ)
 웹지도 반은 초반기에 배웠던 개론+각론을 간단하게 설명해주시고 문제를 풀고
 ->오개념을 잡는 반이었어요. 이때 민쌤도 영역을 확장하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어디에서 잘못 이해하고 있고, 외우지 않고 있고 등등을 확인하고 채워나가는
 시간이라고 하셨어요. 저도 이 시간동안 초수때 잘못 해온 공부내용을 과감하게 버리고
 책과 씨름하며 보냈네요. 문제를 풀다보면 정말x100 이해 안되는 부분들이 꼭 있어요!
 이럴땐 그냥 넘어가지 않고 다양한 각론서 찾아보면서 채워넣고, 꼭 이해하고 넘어갔어요.
 (*각론서를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말씀드리고 가요. 각론서는
 처음부터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공부하다가 부족한 부분이 있을 때 보면서 이해하는
 용도로 활용한다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웹지도 반 때 펼쳐보았어요^^)
 이때는 정말 힘들게 공부한 시간이었어요. 공부내용을 내것으로 만드는 과정이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해요. 여러분도 이 시기에는 어려움을 견디시고 잘 버티시길 바랄게요^^

#스터디

1. 구술 스터디

- 말하면서 자신의 개념을 설명한다면 이것이야 말로 제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민쌤 직강을 들으시는 선생님과 매일 저녁 11시에 전화스터디를 했어요.
 예를들어 웹지도 반에서 이번주에 발달을 나간다면 서로 문제다 풀고, 강의도 다 듣고
 평일에 진도를 정하여 설명했어요. 하루에 30분/ 각각 15분씩/ 범위가 피아제라면
 ‘선생님, 피아제의 평형화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와 같이 제가 15분동안 질문을 하고, 또
 15분이 지난 뒤에는 답변하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 서로 잘못 이해하고 있거나, 어려운
 개념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함께 청킹도 하고, 웹지도 문제중에 이해되지 않은 개념은
 서로 물어보기도 하고 정서적 지지도 되고^^ 9월까지 계속 해나갔어요. 구술스터디
 강추합니다!

2. 논술

-7월에는 스터디를 구하여 기출부터 논술을 쓰기 시작했어요. 8월부터는 다양한 논제들을
 접하면서 혼자 써보고 첨삭도 했어요. 스터디에 대해 효과가 없다고 느꼈기 때문이에요.
 워드로 쳐서 함께 첨삭하는 시간도 아깝기도 하고..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다고 생각해서
 혼자 했네요^^

2. 법 스터디 & 안전스터디

- 이 스터디도 마찬가지로 범위를 정하고 문제내기 었어요. 민쌤이 자료를 주시지만 제
 눈에 익는 글씨체가 아니라 제가 좀 정리해서 다시 법자료를 뽑아보았어요. 정리라고
 해봤자, 글씨체 바꾸고 칸에 넣어보는 정도였어요.

7월 공지사항 월요일 - 토요일까지!♥

1. 유아교육법 부터 5개 조항씩 읽어나갑니다.
2. 중요한 부분에 빈칸을 뚫어서 글쓰기로 올려주
 시고
 enter를 길게 눌러서 답안까지 써주시면 됩니다!
3. 다른 사람 문제를 풀고 댓글을 다는 건 다음날
 오후 3시까지 입니다!
 ->규칙은 3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어길시 기프티
 콘 입니다.^^
4. 불가피한 경우에 빠질 수 있는 횟수는 3번 제
 한입니다.
 ->즉, 내가 글을 못올리는 경우 3회, 다른 사람의
 문제에 댓글다는 것을 3시 이후에 3번 이상 하게
 되면 기프티콘 적용됩니다.

8월 계획 (기타법 + 4주기 + 안전)

*8월 볼 법들

- 유아교육법시행규칙
- 교육기본법
- 장특법
- 아동복지법
- 생기부
-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 교원지위향상법
- 8월1주(7/29~8/5) 법3개 + 4주기 2개
- 법: 월화수-유아교육법시행규칙
 목금토-교육기본법
- 4주기
- 8월2주(8/7~8/12) 법3개 + 안전2개
- 법:월화수-장특법

목금토-아동복지법

- 안전: 월화 - 교통안전/
 수목- 생활안전
 / 금토-폭력및 신변안전
- 8월3주(8/14~8/19) 법3개 +안전2개
- 법 :월화수-생기부
 목금토-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
- 안전:월화-악물및 사이버중독/
 수목-재난안전/
 금토-응급처치
- 8월4주(8/21~8/26)
- 법 : 월화수 - 교원지위향상법
 목금토- 교육공무원법
- 안전:성폭력
- 8월5주(8/28~9/2)
- 법: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 9월계획
- 8월5주(8/28~9/2)
- 법:월화수-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개별적으로 법 보기
- 강학: -월화4주기 목금 -혼합연령
- 9월1주
- 강학:월화-유치원 운영위원회 길잡이
- 목금 교원능력개발평가
- 9월2주
- 월화 :누리과정 컨설팅강학 운영매뉴얼
- 목금:아동학대
- 9월3주
- 월화: 장애통합

유아교육법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ㄱ」 제9조에 따라 유아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3.24.>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라 유아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3.24.>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3.24. 2012.3.21.> 1. "ㄱ"란 만 ㄴ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전까지의 어린이를 말한다. 2. "ㄴ"이란 유아의 보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 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 3. "ㄷ"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유아를 사실상 보호하는 자를 말한다. 4. 삭제 <2012.3.21.> 5. 삭제 <2012.3.21.> 6. '방과후 과정'이란 제13조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 이후에 이루어지는 그 밖의 보육 활동과 생활 활동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3.24. 2012.3.21.> 1. "유아"란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전까지의 어린이를 말한다. 2. "유치원"이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 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유아를 사실상 보호하는 자를 말한다. 4. 삭제 <2012.3.21.> 5. 삭제 <2012.3.21.> 6. '방과후 과정'이란 제13조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 이후에 이루어지는 그 밖의 교육 활동과 놀이 활동을 말한다.
제3조(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ㄴ와 더불어 유아를 건전하게 교육할 책임을 진다.	제3조(책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유아를 건전하게 교육할 책임을 진다.
제3조의2(ㄱ-계획) ① 교육부장관은 유아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유아교육에 관한 중장기 정책 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ㄱ-계획(이하 "ㄴ-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교육부장관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앙유아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ㄴ-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3조의2(유아교육발전기본계획) ① 교육부장관은 유아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유아교육에 관한 중장기 정책 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유아교육발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교육부장관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앙유아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법 예시) 이런식으로 칸을 만들어서 눈에 더 잘들어오게 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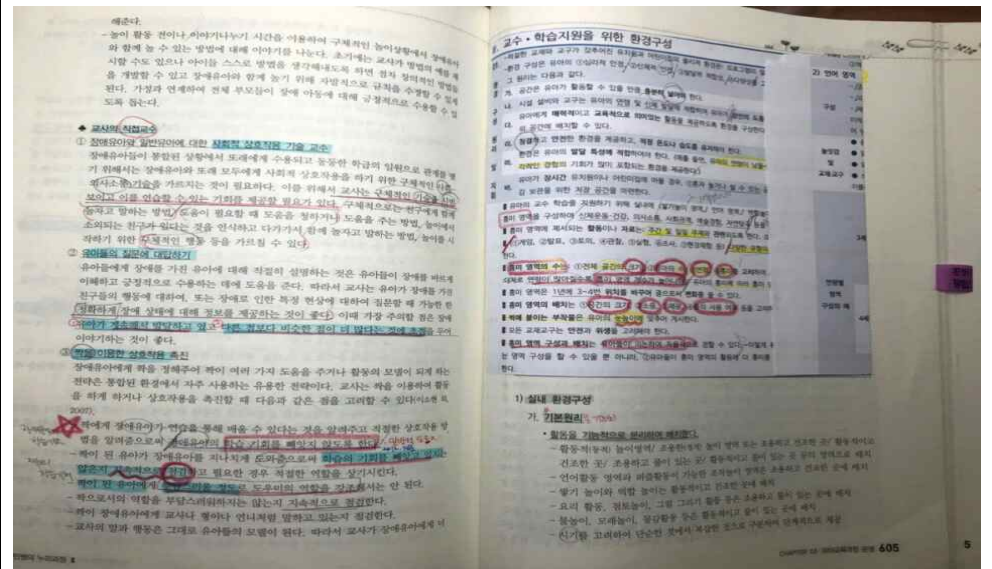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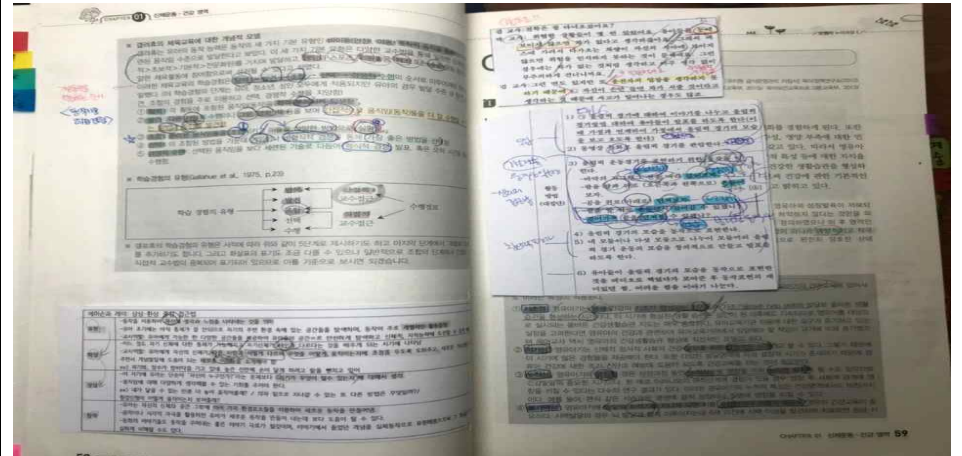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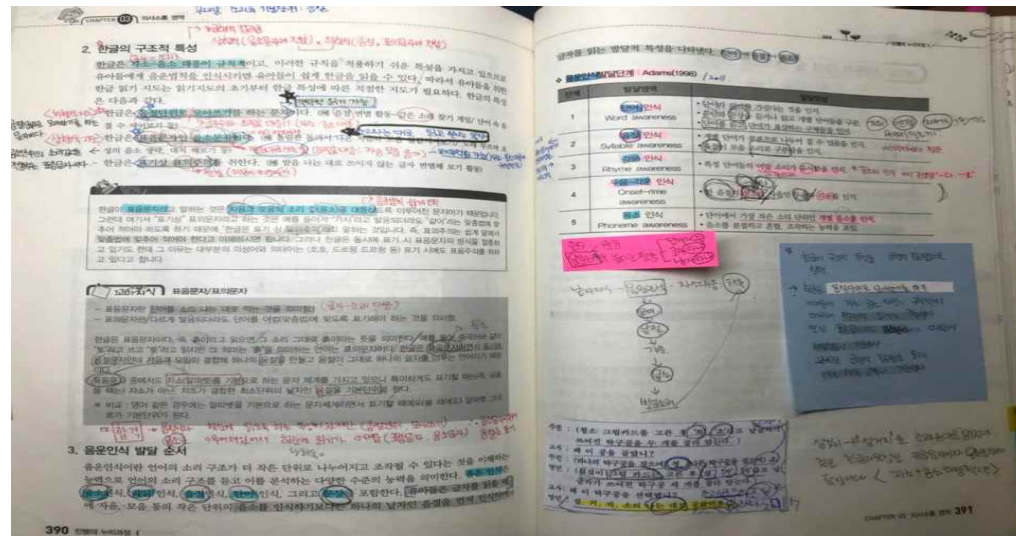
#스케줄 예시

	평일	토요일	일요일
오전 : 8시 ~12시	개론 복습	웹지도 문제풀기	인강 듣기
점심 후 :12시	민생 자료/ 해지서		
오후 : 1시~3시	법/ 논술		
초 저녁 3시 ~ 7시	각론	휴식	휴식
저녁	식사		
9시 ~10시 30분	마무리/ 집으로 이동		
11시 30 ~ 12시	구술스터디		

모의고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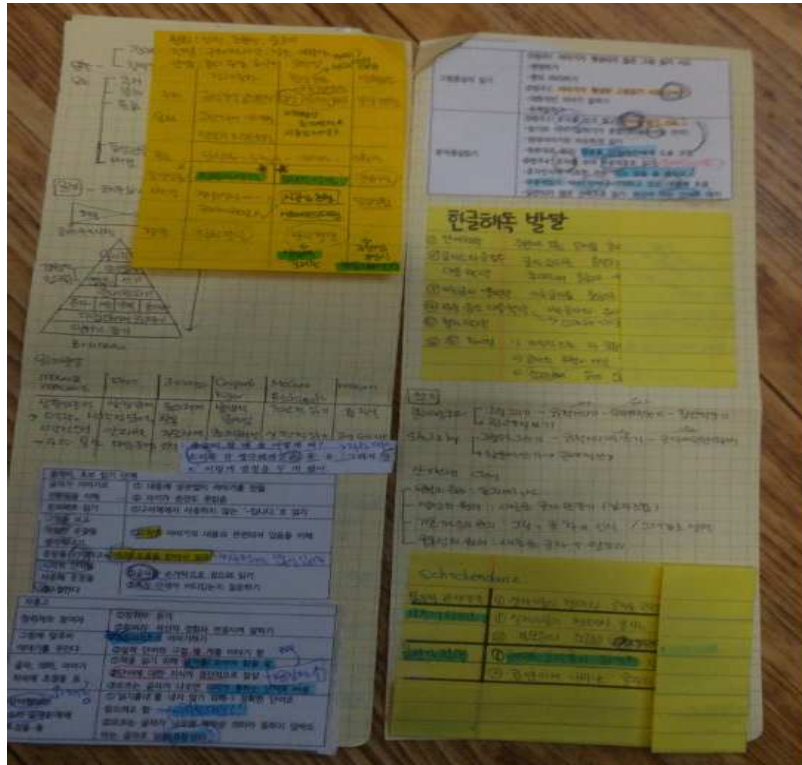
웹지도반이 타 강사기준에 비해서 조금 늦게 끝나서 좀 초조해졌어요. 하지만 이때 차분하게 마무리하자, 여러번 돌리는 것이 내것은 아니야. 라고 생각했어요. 아마 민쌤도 이것을 생각하고 차분하게 마무리 하시길 바라는 마음이었던건 아닐까 싶어요. 모의고사반은 불안의 연속이에요. 한 회차가 끝나고 다른 사람과 점수를 비교하며 나를 잡아먹기 때문이죠. 이때에도 자신을 믿으며 다시 마음을 다잡아 가세요. 하나하나 정확하게 보고 다른 사람들 몇번 돌리는것에 의미를 두지 마시고 나의 페이스를 유지하세요. 저는 주말에 한 회차씩 풀고, 내가 부족한 부분을 다시 살펴보며 문제에 나왔던 좋은 지문, 다시 봐야할 개념등등을 체크해나갔어요.

- 아 그리고 저는 웹지도 책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강의 들을때만 연필로 필기하고 시험전날까지 초반기에 사용했던 개론, 각론 책을 그대로 활용하여 읽어나갔어요. 이미 제 눈에 익었던 것 이기도하고, 저는 글줄이 더 좋았어요.^^



#한쪽 요약

마지막에 민쌤이 한 장에 공부내용을 정리해주신 자료가 있었어요. 보다보니 제가 그동안 만들어왔던 목차와 서브 공책은 막상 시험장 가면 몇 글자 못 보겠더라고요. 그래서 민쌤처럼 시험장용 요약을 하였습니다. 글줄을 보며 옆 빈칸에 정리해두었던 포스트잇, 이론가별 이론 순서등등을 떼어서 반쪽 요약을 했어요. 책을 마지막으로 정독하면서 요약해나갔답니다.



#스케줄

-9월부터는 하루도 안쉬고 공부했어요. 데이트도 도서관 밑 음식집 가서 점심먹는 정도로만 했어요. 이때부터는 정신력 싸움이거든요.
-개론은 각론보다 좀 먼저 시작해서 그런지 정독 속도가 빨랐어요. 그래서 2틀에 한 과목 정도 보았어요.
-각론은 일주일에 한바퀴 돌려고 했어요. 다른 이론에 비해 다소 양이 적은 신체같은 경우엔 하루에 다 끝이지만 의사소통, 사회관계와 같이 암기양이 많은 것은 2틀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9월까지의는 보통 2주에 전체를 다 돌려봤던 것 같아요.
-10월부터는 일주일에 전체를 돌려볼 수 있었어요. 여기서 중요한건 몇 번을 돌려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고를 풀고, 내가 많이 틀렸던 부분, 이해하지 못한 부분등등을 한주동안 다시 점검하면서 돌려보느냐가 중요해요.

	평일/토요일	일요일
오전 : 8시 ~12시	개론 복습	모고
점심 후 :12시	민쌤 자료/ 해지서	
오후 : 1시~3시	법/ 논술	
초 저녁 3시 ~ 7시	각론 - 신체	인강/ 오답
저녁	식사	
9시 ~11시	각론 - 의사소통	
11시~12시	이동/취침	

‘준비됐다. 꽃 피우러 가자’**#준비물 ‘차분하게, 차분하게’**

- 따뜻한 물
- 손목시계
- 컴퓨터용 싸인펜
- 여유로운 마음가짐

#시험장

-정문을 넘어서는 그 순간까지 전혀 떨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엄마가 혹시 모르니 청심화를 가져가 보라 하셔서 챙겨갔어요. 그런데 시험 감독관이 들어오는 순간 심장이 요동치기 시작했어요. (절대 이러시면 안되요.ㅠㅠ) 그래서 청심환을 먹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술을 푸는데 너무 떨리더라고요.

#논술

논술 받자마자 오예!!!!를 속으로 외쳤어요. 왜냐하면 민쌤이 웹지도반때 강조하시면서 내셨던 부모교육 이론가를 중심으로 나왔기 때문이에요. 정말 맘편하게 쓰고 나왔어요. (전 정말 정확하게 썼는데 논술 점수가 높지 않아요. 왜 그런진 정말 모르겠어요. 이번 논술은 기준이.. 다른 합격생 이야기를 들어봐도 정확하게 쓰고 나온 사람 점수보다 애매하게 쓴 사람 점수가 더 높기도하고 그렇네요.) 하지만 시험장 순간만큼 ‘이거 만점이다!’라고 느꼈어요.....

끝나자마자 월비스에 전화해서 ‘꼭 민쌤 사랑한다고 전해주세요’라고 했는데 전해주셨는지 모르겠어요...ㅎㅎ

#교육과정A

저는 사실 교육과정 문제가 어렵게 나오길 바랬어요. 이번에 뽑는 인원이 많아서 변별력을 갖췄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너~~무 쉽게 나온거예요. 문제를 풀면서 ‘아..이거 진짜 한 문제 실수하면 큰일 나겠다.’ 싶었어요.

#쉬는 시간

생각보다 시간이 짧아요. 쉬는 시간에는 화장실 한번 다녀오고, 한쪽요약을 해왔던 종이를 훑어보면서 개념을 생각해보았어요.

#교육과정B

점점 머리가 아프기 시작했어요. 작년에도 시험이 끝난뒤에 몇일을 두통 때문에 고생했는데 이번엔 시험장부터 아프기 시작했어요. 긴장을 한 상태에서 문제가 쉽다고 생각해서 술술풀다가 긴장이 스~음 풀리니 머리가 아픈 것 같아요. 그렇게 머리를 부여잡고 시험을 치뤘어요. 그런데 문제를 풀다보니 한 문제에 2가지 답을 쓰는 문제들이 종종 있었는데 이건 기호를 같이 써야하나? 그냥 답만 써도 되나? 엄청 난 고민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순간 그냥 문제에서 요구한 대로 ‘답’만 쓰자! 생각하고 기호를 요구하지 않은 문제는 답만 썼어요. 이렇게 시험장에서 엉뚱한 것에 의문을 품게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럴 때는 선생님들도 문제가 요구한 것만 쓰시길 바래요. 나중에 결과를 알고보니 기호를 써도 상관없긴 하더라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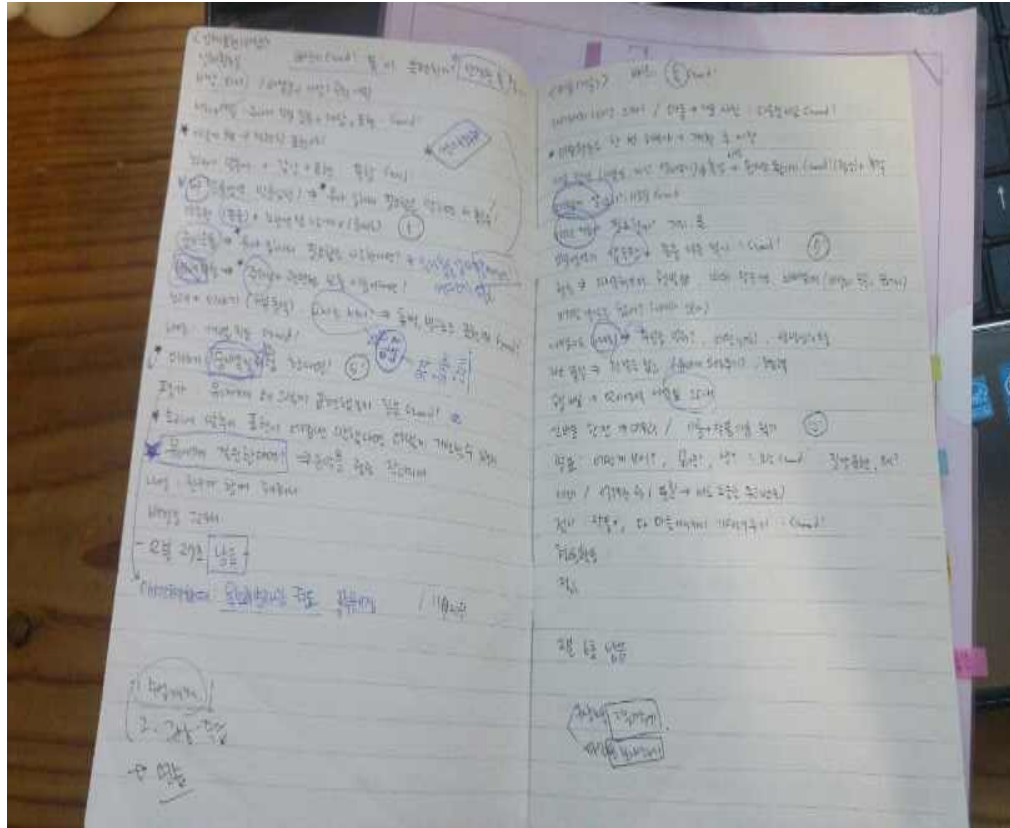
#1차가 끝나고 1주일

시험자를 나오는데 모든 사람들이 웃으면서 나왔어요. 이번시험 정말...사람 피를 말리겠구나 싶더라고요. 그리고 집에서 1주일간을 푹 쉬었습니다.

저는 가채점을 하지 않았어요. 초수때도 그렇고, 올해도 가채점을 하지 않은 이유는 의미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틀리거나 실수한 부분에 고통스러워할 것이 뻔하고 스스로를 너무 아프게 할 것 같았어요. 더 이상 떨어질 자존감도 없었거든요...BB
이건 개인차가 있으니 잘 생각해보세요^^

#2차 스터디

저는 사립에서 일했을 때 선생님들과 함께 했어요. 그래서 4명의 동료들끼리 모여 스터디를 했어요. 둘씩 짝지어 짝 스터디를 하고 집단토의를 위해 딱 한번 모였어요.(발표가 난 뒤에는 일주일에 두 번 모두 모여 집단토의를 했어요.)
-발표 나기 전까지 짝 스터디 선생님과 매일 만나 하루에 한 가지 유형의 활동을 하고 나만의 활동으로 정리해나갔어요. 1차 발표전 임에도 저는 동영상상을 찍어서 확인했어요. 그리고 발문, 상호작용 방법 등등을 고민했습니다. 다음 사진은 2차를 준비하면서 썼던 노트예요.)



-잘 보이시나요? 오른쪽에는 저의 수업 과정을 짝스터디 선생님이 보시면서 적어주시고, 왼쪽에는 수업나눔을 적었어요. 제가 수업을 하고 나면 선생님께서 오른쪽 페이지처럼 좋았던 점, 잘못된 발문 등등을 되짚어주시고 왼쪽 페이지처럼 수업 나눔때 자세, 톱 부러지게 말하는 방법 등등을 이야기 나눴어요. 수업나눔은 미리 예상 질문 목록을 만들어서 수업을 본 사람이 부족하다고 느낀 부분을 중심으로 질문을 해줘요. 그럼 저는 그 말을 듣고 저의 수업을 '반성적'으로 성찰할 수 있도록 연습했어요.

1차 발표 전 계획표 / ★ 합격 ★

월	화	수	목	금	토	일
20	21	22	23	24	25	26
생활주제: 환경과생활 유형: 신체	생활주제:봄 여름~ 유형:미술(자유)	생활주제:건 강과안전 유형:요리	생활주제:동 식물&자연 유형:게임		생활주제:우 리동네 유형:동시	
27	28	29	30	1	2	3
생활주제:환 경과생활 유형:바깥놀 이	생활주제:동 식물&자연 유형:동극	생활주제:우 리동네 유형:쌓기(자유)	생활주제:건 강과안전 유형:이야기 나누기		생활주제:우 리나라 유형:동시	
4	5	6	7	8	9	10
생활주제:유 치원&친구 유형:새노래	생활주제:나 와가족 유형:조형(명화감상)	생활주제:생 활도구 유형:음률(자유)	생활주제:교 통기관 유형:과학		생활주제:생 활도구 유형:동화	
11	12 발표					
생활주제:유 치원&친구 유형:언어영 역(자유)						

〈수업나눔 예상 질문〉

- 이번시간 유아들이 배움을 달성하도록 하기위한 교사의 의미있는 발문은 무엇이었습니까?
- 선생님의 교육철학을 수업에 어떻게 반영하셨고 실생활과의 연계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 이번 수업시간의 아쉬웠던 점과 배움중심수업을 실현하기 위해 앞으로 어떤 노력을 할 것입니까?
- 오늘 수업에서 선생님의 신념(의도)는 무엇이었으며,
그 신념을 지켜 내기 위해서 선생님이 선택한 수업 설계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초등)
- 오늘 수업에서 가장 의미 있는 부분은 무엇이었나요?
수업 중에 고민이 있었던 지점을 성찰하세요. (딜레마 관련)
- 본인이 했던 발문이 교사 주도적이었나요? 유아 주도적이었나요?
- 본인이 설정한 수업 목표를 달성했다고 생각하나요?
- 교육과정 운영/유아 평가를 참고하여 질문할 수 있음.
- (예) 교사와 유아가 질적인 상호작용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나요? (반성적 성찰이 가능함.)

#1차 발표 후

-1차 발표 난 다음부터는 초반엔 수업이 하루에 2개 영역도 벅찼는데 좀 지나니깐 하루에 5개씩도 하고 있더라구요.

-1차 발표 후 짝 스터디는 1주만 하고 나머지 2주는 혼자 했어요.

지도서를 보면서 괜찮은 주제-소주제가 있으면 그 문제로 풀고 연습했어요.

그리고 민쌤이 주신 지도서에서 발췌한 좋은 내용을 추려서 보기도했어요.

지도서를 정독한다기 보단.. 저는 문제로 활용했어요. 지도서를 읽은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목표에 맞게 문제를 잘 풀어나가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1차 컷이 높은 점수가 아니라 심적으로 힘들었어요. 같이 스터디 하는 선생님들은 모두 고득점이었거든요... 나만 떨어지면 어떻하더라는 생각을 할 때 마다 선생님들이 모두 저를 다독여주시고, 편지도 써주시기도 하고^^ 함께 의지가 됐어요.

-2주 동안 혼자 준비할 때는 미.친.듯.이 했어요. 저는 다른 사람보다 잘해야 뒤집을 수 있는 점수였기 때문이에요. 잠은 8시간은 꼭 잤지만 깨어있는 동안은 계속 연습했어요. 나중에는 목이 너무 아프더라구요.. 목에 뿌리는 약을 수시로 뿌려가며 연습했어요.



1. 면접

- 초수때 사용한 합격해도 괜찮아를 이용하여 저만의 공식을 만들어갔어요.

끊어읽기

항상 ~입니다. 왜냐하면 ~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는 ~라고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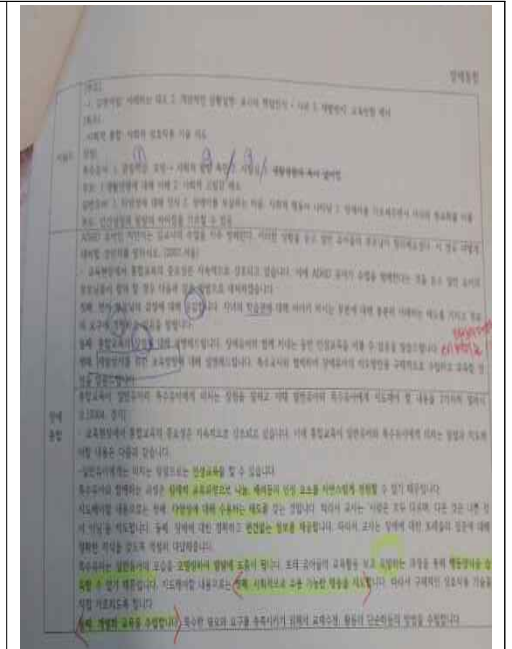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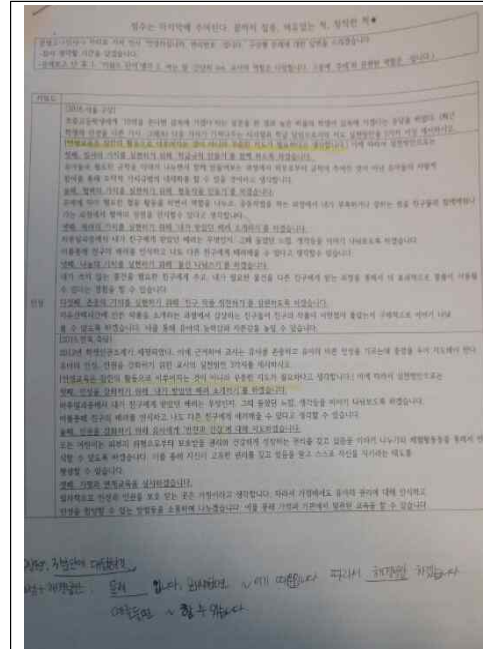
와 같이 끊어읽기를 연습했어요. 말이 길어지다보면 듣는 사람도

‘도대체 그래서 너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거니?’라고 생각이 들더라구요.

나만의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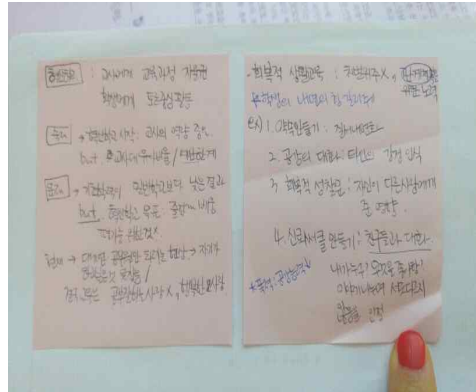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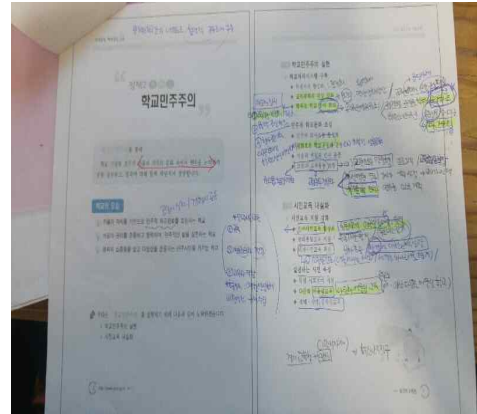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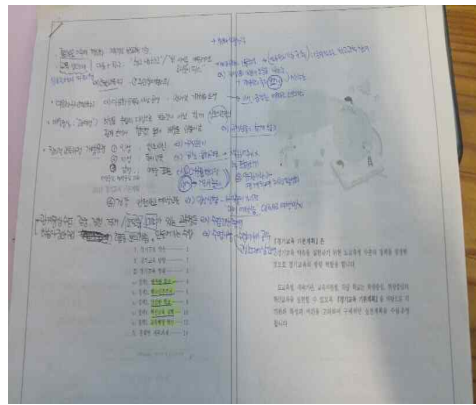
저는 ~라고 생각합니다. 이후에 예를 항상 들었어요. 이때 예는 현실가능한, 구체적인 예로요!

그래서 이번 미세먼지 면접 문제에서도 바깥에서 활동을 실내에서 하겠습니까. 이후에 구체적으로 예를들면 유니바 활동을 준비했다면 실내에서 할 수 있도록 작은 유니바를 이용하여 활동하도록 하겠습니까. 와 같이 했어요. 스터디 선생님과 비교해보니 이렇게 구체적인 활동명을 이야기 한점이 점수를 잘받을 수 있던 요인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2차를 준비하실 때 항상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으로 실현할것인지를 연습해주세요!



경기교육

- 경기교육의 강조점을 알고 이해해나가야 되요. 그리고 경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을 ‘내 교실에선 어떻게 펼칠 것인가’를 준비하셔야 되요.



-> 경기교육 자료를 뽑아서 거기에 필기해나갔어요.
교실에서 나는 어떻게 할까? 어떤 방법이 좋을까를 고민하면서요^^

2. 수업

동영상 찍기

- 항상 동영상 찍었어요. 동영상에 나오는 제 모습을 보면 ‘내가 언제 이런 발문을 했지?’ 싶어요. 꼭 여러분 동영상 꼭 찍으세요. 스터디 해도 꼭 찍으세요.
- 나의 표정, 몸짓을 객관적으로 보고 잘못된 부분을 깨달으시고 자기전이나 명상할 때 **이미지 트레이닝**하세요. 면접관 앞에서 활짝 웃으며 자신감있는 나의 모습을요!
-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정말 면접관 앞에서 자신감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거예요! 무의식적으로 나온답니다^^

수업나눔하기

- 수업 나눔이 문제였어요. 제가 말을 똑 부러지게 하는 편이 아니라서 면접, 수업 나눔이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1차때 준비했던 수업나눔 예상 문제들을 뽑아서 항상 수업이 끝난 다음에는 수업 나눔까지 제비뽑기로 대답했어요. 이렇게 대답을 몇 번 하다보니 저만의 수업나눔 틀이 생기더라구요.

집단토의

- 4명의 조원들끼리 해보다가 다른 사람들과도 해봐야겠다고 생각됐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랑 조를 꾸려서 집단토의를 했어요.
- 여기서 좀 충격(?) 적이었던 것이 저의 스터디원들의 분위기는 정말 밝았다면 다른 팀들은 정적이고 아나운서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딱딱하다기 보단 안정되 보였어요. 그래서 우리 조원들끼리는 안정됨은 더 갖추어야겠다고 생각하고 상대 팀들은 좀 밝은 면을 가져야겠다고 생각하게 된 계기가 되었어요^^

1일차

#집단토의 준비과정

-집단토의 점수는 모든 구성원들이 적절한 상호작용을 통해서 지혜로운 결과물을 얻느냐... 이것 같아요. 토의 선생님들이 방향을 이끌어간다면 저는 방법을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갔어요. 조원들간에 조화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팔색조처럼 어느 그룹에 갖다 놔도 어울어 질수 있도록 연습해야해요.

즉, 연습할 때 살을 붙이는 역할이나 방향을 이끌어 가는 역할, 둘 다 연습하셔야 되요. 하나만 하겠다 하시는 분들도 방향을 이끌 때 어떤 말로 해야할까? 이 정도는 생각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집단토의 평가과정

-제가 했던 말중에 평가위원님들이 고개를 끄덕이시던 부분은 '안전방법'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눌 때 경기 교육에서 강조하고 있는 나침반 교육을 해보면 어떨까요? 예를 들면 정기적인 교육시간 뿐만 아니라 신체활동을 하기전에 되짚어본다면 아이들도 효과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것이라고 생각해요./ 상호작용 방법에서는 아침맞이 인사는 어떨까요? 아침에~~/ 창의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창의노트를 만들어보는 건 어떨까요? 방법은 ~~. 와 같이 정말 교실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요.

#나만의 기조/ 정리발언 틀

-저는 기조와 정리발언 틀을 미리 만들어서 어떤 문제가 나오든, 여기에 적용했어요.

기조) 학교는 삶과 배움이 하나로 이루어지는 행복한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사례에서 ~상황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선생님들과 서로 존중, 협력하는 토의를 통해 이를 해결할 수 는 방안을 알아보고 싶습니다. 더불어 교사가 갖추어야 할 역량에 대해 함께 고민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논제가 항상 문제점이여서 이렇게 했었는데 막상 시험에서는 문제점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융통적으로 적절하게 문장을 바꿔 사용했어요^^)

정리) 오늘 선생님들과 함께 이야기 나눈 것은 저에게 정말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사실 이전에 저는 ~부분을 협조하게만 생각했었는데요, 오늘 선생님들과의 토의를 통해 ~와 ~의 관계에 대해 구체적으로 인식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제가 경기교사가 되어 현장에 간다면 (대화에서 나온 구체적 사례)를 꼭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저 또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해 나가는 교사가 되겠습니다.

집단토의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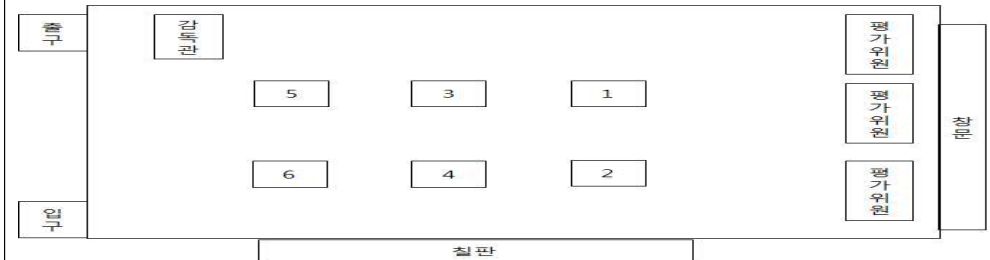
문제) 다음 자료를 토대로 경기 교육이 지향하는 '행복한 유치원, 따뜻한 배움이 있는, 오고 싶은 유치원'을 만들어 가기위해 경기 공립유치원 신규교사로서 필요한 자세와 역할에 대해 토의하시요,

경기 교육감 2018 신년사

2018 무술년 새날이 밝았습니다. (중략) 경기교육은 '학생이 행복한 교육'을 실천하고 학생중심, 현장중심 교육을 지향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고민과 연구를 할것입니다.

(중략)

학생 스스로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는 학교, 창의적 발상과 진취적 도전을 펼치는 학교, 모든 학생이 건강하게 살아가는 따뜻한 학교, 자율과 자치를 기반으로 서로 존중하는 민주적인 삶을 실천하는 학교, 학교를 학교답게 만들어 가는 길에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번: 오늘 우리가 논제를 받고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 어떤 것부터 이야기 나누면 좋을 까요? -2초 정도.. 서로 눈치봄

-나(4번) : 선생님 말씀처럼 하나씩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먼저 신년사에 나온 이야기를 실천하기 위해 교사가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적극적인 태도는 경기교육을 실천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3번: 그럼 적극적인 자세를 실천하기 위해서 ~~~

-6번: 그럼 자세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혹시 또 더 이야기 하고 싶으신 선생님 계신가요? 그럼 이번엔 역할에 대해 이야기 하고 싶은데, 의견을 갖고 계신분 있으신가요? (이분이 사회자 역할을 하셨는데... 저는 좀 별로 였어요. 왜냐하면 앞에 다른 사람의 의견에 대해 어떠한 언급없이 순서를 넘기려고만 했기 때문이에요. 사회자 역할을 하실분은 이 점에 대해 유의하 셔야 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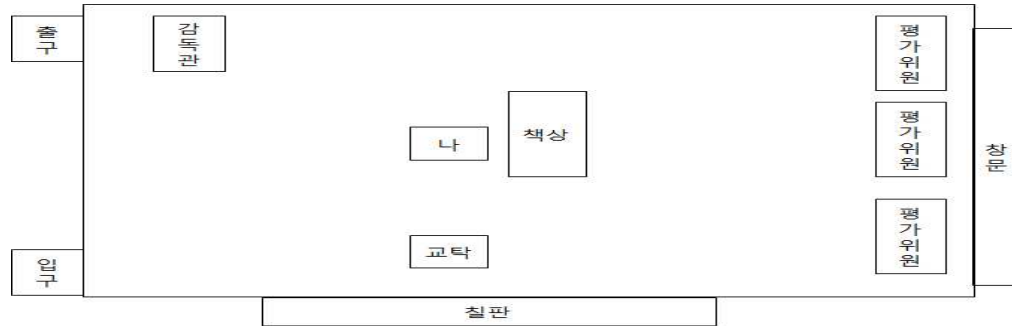
-2번: 창의적 발상을 펼치기 위해서는 ~~한 방법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5번: 그럼 저도.....

->끝나고 나서 제가 썼던 자리에 지우개 가루를 하나하나 모아서 깨끗하게 정리하는 모습을 의도적으로 보여줬어요. 의도한건 아니었는데 어쩌다 보니 정리하고 나가는 모습이 비춰져서 끝까지 정리했습니다.^^;

#개별면접

->입구에서 똑똑 -> 문 닫음 -> '안녕하십니까, 관리번호 2번입니다. (방끗^^ 하지만 얼굴근육은 떨리고 염소목소리가 나도 모르게 되더라구요..ㅎㅎ) -> (하고 바로 자리에 앉으려고 교탁옆으로 가려고 하는데 평가위원께서 '교탁옆 자리~~'라고 설명 해주시더라구요. 그래서 걸어가다가 멈춰서 살짝 당황했어요.) 인사드리면 설명해주실거예요. 인사드리고 살짝의 틈을 갖고 의자 옆으로 가도록 하세요.) -> 교탁옆 의자앉기 (앉았는데 제가 닫았던 문이 스르륵.. 열리는거예요. 그러자 평가위원께서 감독관에게 저 문.. 계속 열리네.. 라고 하셨어요. 그때부터 좀 당황...문이 고장나서 안 닫히고 계속 열리더라구요.) **문 닫음 꼭 확인**하세요!-> 종이 올리고 책상 앞으로 이동



구상형1. 다음 사례에 나타난 문제점의 원인과 교사로서 해결방안을 말하시오.

- 최근 유치원 교사의 아동학대가 증가되고 있다.
-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모두가 증가되고 있다.
- 20대 유치원 교사의 아동학대 비율이 높다.

1. 교사의 정서적 불안정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동학대가 일어나는 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그대로 표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교사는 자신의 감정을 조절할 수 있도록 스트레스를 해소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은 요가,수영등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2. 교육적 신념의 부재입니다. 아동학대를 하는 것은 가르치는 사람으로써 자신의 교육관이 뚜렷하지 못하여 생기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자신의 교육적 철학 되짚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들면 저는 최근에 '딥스'라는 책을 읽었었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저도 교육적 철학을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교사들도 이 책을 읽으면서 자신을 되돌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들 때 좀 황설 수설한 느낌이었어요. 사실 딥스라는 얘기는 할까말까 고민했었는데 저도 모르게 툭 튀어나왔기 때문이에요. 그래도 흔들리지 않고 문제를 생각하면서 문제에 맞게 이야기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고개를 끄덕여주시더라고요)

구상형2. 교육실습 기간동안 유아중심, 놀이중심 교육을 실현하는데 있어 저해요소(수업, 환경, 생활지도)를 말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말하시오.

(구상형 1을 말하고 나니 2번의 문제가 생각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설명을 한다가 보다 '읽었다'라는 느낌이 강했던 것 같아요. (절대! 읽지마세요!!! 평가위원에게 설명한다, 대화한다등의 느낌으로 말씀하셔야 해요!) (+구상형 2번문제가 현재 누리과정의 문제점으로 교육부자료에서 본적이 있었기 때문에 무엇을 원하는지 알았지만...적절한 내용을 잘 표현하지 못한 것 같아요.ㅠㅠ)

첫째, 수업측면에서는 교사중심의 수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사가 유아의 수준에 맞춰 수업을 준비하더라도 교사가 수업을 이끌어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해결방안으로는 교사가 자신의 수업을 영상으로 찍어서 점검하고, 동료교사와 고민을 나눌 수 있습니다.

둘째, 환경측면에서는 구조화된 교구라고 생각합니다. 주제에 맞춰 교구를 준비하지만 유아의 창의성을 중심으로 하기엔 다소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구조화된 교구를 준비하기 보단 다양한 생각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면.....(예가 잘 기억 나지 않네요. 구상시간이 부족하여 예는 즉흥적으로 만들었거든요...)

셋째, 생활지도 측면에서 유아의 눈높이로 보지 못하는 점입니다. 유아와의 상호작용은 유아가 보는 시선에 따라서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유아의 수준에 맞춰 개별적인 상호작용을 하겠습니다. 예를들면 기본생활습관으로 젓가락질이 서툰 유아에게는 적절한 칭찬과 도구의 수정을 통해 상호작용 할 수 있습니다.

즉답형1. 다음 사례에 나타난 문제점의 원인과 해결방안을 말하시오.

-4세와 5세 두 학급이 한 화장실을 같이 사용하고 있다.

-학부모들의 항의가 증가하고 있다.

-4세 유아가 소변을 보는 다른 유아를 흠쳐본다.

다음에 나타난 문제점의 원인은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4세,5세 유아가 모두 한 화장실을 동시에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한 해결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먼저 학부모님에게 사과드리겠습니다. 학부모님의 입장에서는 이 상황이 자녀의 성교육과도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여기서 고개를 끄덕여주셨어요.) 이를 위해서 동료교사에게 문제점을 알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사회의를 거치겠습니다.

----- 여기까지만 말했어요. 여기서 유아에 대한 상호작용을 설명하지 못한점이 점수를 받지 못한 것 같아요. '성교육'에 관련되어 이야기 한다면 좋을 것 같아요^^-----

즉답형2.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인 날 실외놀이 대체활동을 계획하고 미세먼지 발생시 대처방안을 말하시오.

미세먼지가 당일 ‘나쁨’으로 나타난다면

먼저 아이들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과 사전에 이야기 나눈 하루 일과에서 변경되기 때문입니다. 예를들어 오늘 우리가 실외활동을 하지 못하는 이유인 미세먼지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다음으로 실외활동을 실내활동으로 변경하겠습니다. 예를들면 유니바 게임을 계획했다면 실내활동으로 작은 유니바를 사용하여 게임을 진행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이들과 마스크 착용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예를 들면 KF80이상의 마스크 착용의 중요성을 이야기 나눌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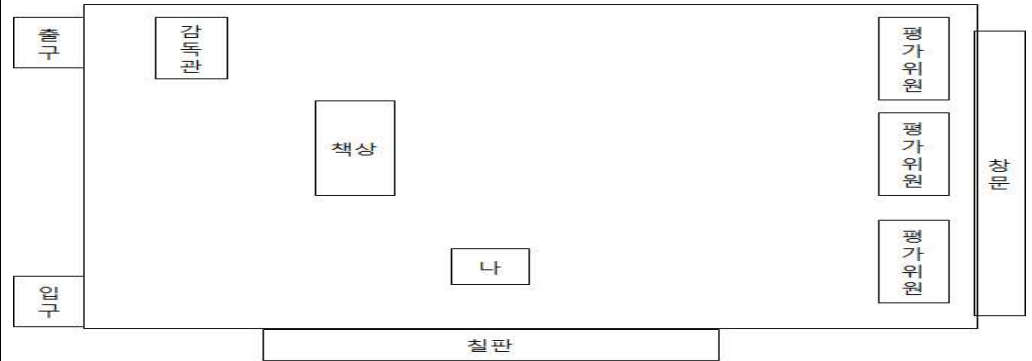
추가질의. 자신의 성장이 언제 많이 일어났다고 생각하나요? 교육적 성장이 있었던 경험에 대해 말하고, 그 경험이 앞으로 교직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말해 보시오.

-> 이때 제가 정신을 좀 뺐어요. 질문을 주셨는데 성장한 경험을 말하라는 건가? 성장을 통해 얻은 것을 말하라는 건가? 고민이 됐거든요. 고민을 오래하니까 앞에 평가위원께서 ‘즉답형 물어본거야?’ 라는 말소리가 들리더라고요..ㅎㅎ아무래도 즉답형 땐 바로바로 말했는데 자성소 질문때는 고민하니 물어본거 같아요. 이때 정신 바짝 차리고 완전 화~~알짝 웃으면서 자신감 있게 대답했어요.^^

2일차

#수업실연

-저는 자유선택활동: 미술영역을 했어요. 여기에 대해 말이 정말 많았는데요. 뚜껑을 열어보니 크게 상관이 없었나봐요.



-누리반 친구들 모두 모였나요? 앞에 앉은 친구는 바닥에 앉아주었고, 뒤에 앉은 친구는 의자를 가지고 왔구나. 오늘 아침에 선생님이 울산에 지진이 났다는 뉴스를 보았어, 잘보이니? (탐을 가지고 온 모션) 혹시 너희들도 보았니?

* 문제안에서 유아마다 지진대피에 대한 관심도가 다 다르다는 내용이 있었어요. 저는 이 부분을 상호작용에 반영했습니다. 다른 선생님과 이야기 해보니 이 부분을 놓지 않은 선생님의 점수는 높지 않았던 것 같아요.

즉 문제에 나온 내용들은 꼭 수업안에 넣어야 한다고 생각하셔야 되요.

--이는 보았다고 하는구나, ~이가 그러는데 ~이 할머니네 집도 지진이 나서 많이 걱정됐다고 하는구나, ~아 옆에 ~이가 그러는데 할머니가 괜찮으시냐고 물어보네~, ~아 ~이가 괜찮으시다고 하셨어. 많이 걱정됐구나.(유아간 상호작용)

--이는 주말에 지진대피소에 가족과 다녀왔다고 하네. ~이는 그때 무엇을 했니? / 어떤 느낌이었니? / (-)느낌을 물어볼 때 평가위원이 무엇인가를 적었어요.)

--이는 지난번 우리반에서 지진대피 훈련을 했던게 기억 나는구나, 어떻게 했었는지도 기억나니? 앞에 나와서 친구들에게 보여주고 싶다고? 그래, ~이도 보여달라고 하네,(저는 발문을 ~하자, ~할까? 와 같이 교사가 뭔가 주도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항상 친구 ~가 ~해보자고 하네, 라는 발문을 사용하였어요. 이것도 팁이라면 팁...^^ 앞에 나와서 유아가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을 리포팅 했어요.) ~이가 지진이 나면 손을 머리위에 올리고 어디로 들어갈지 찾아보고 있네, ~이가 저쪽 책상에 밀이 있대! ~이도 찾았나봐! 책상밑으로 들어가네! 그리고 ~~ (리포팅 계속)

--이는 우리가 지진대피 훈련을 했을 때 유치원에 다니지 않아서 잘 모르겠다고 하는구나, ~아 옆에 ~이가 조금 이따가 자유선택 시간에 같이 지진대피 훈련 놀이를 하자고 하는구나~ 그래~이도 같이 하자고 하네

-누리반 어린이들이 지진대피 훈련을 마치고 '선생님~ 지진대피 놀이를 하고 싶어요~'라고 해서 오늘 선생님이 자유선택시간에 놀이 할 수 있도록 언어영역, 미술영역, 역할영역에 준비해두었어. (여기서 문제에 나온 영역을 언급하긴 했어요.) 그리고~ 자유선택활동에 대해 모두 설명해주었어요.(시간 조절상 설명을 했다 하고 넘겼어요.) 오늘 놀이를 계획하고 긴바늘이 2에 갈 때까지 놀이해보도록 하자. 어제 지진대피 책자를 다 만들지 못한 친구들은 계획표에 언어영역을 계획해보세요~(지난 활동과 연계를 강조하기 위한 발문:민샘이 수업시간에 틈을 주셨어요.)

-(그리고 한 바퀴 교실을 돌았어요.) 누리반 친구들이 놀이를 즐겁게 하고 있나요?
여기 역할영역 친구들은 지진대피 놀이를 하고 있구나,~ 이런식으로 두 영역 정도 언급을 해줬어요.

-미술영역 친구들도 모두 모였구나. ~도 오고, ~도 ~도 (유아 이름 언급하며 웃어줌)

-재료 탐색 :앞에 어떤 재료가 있어? ~이는 도화지가 있다고 하네~ ~이 말처럼 미술영역에서 지진대피 포스터 만들기를 하기로 했었지~ 도화지를 만져보니 어때? 한쪽은 매끄럽고~ 한쪽은 좀더 부들부들하다고? ~이는 부드러운 면에 연필로 그림을 그리고 싶대~ 그럼 어떻게 될까?

-우리가 재료를 모두 다 알아보았어, 재미있게 하려면 또 무엇이 필요할까? ~이가 그러는데 우리반 미술영역 약속판을 같이 보자고 하네 한번 볼까?

-(들고 있는 모션) 우리반 미술약속판이야. 어떤 약속이 있었지? 첫째. 도구를 안전하게 사용해요. 가 있었고~ 세번째 약속까지 모두 살펴보았는데, 우리가 오늘 활동에서는 어떤 약속이 필요한 것 같니? ~이가 친구 작품을 존중해주었으면 좋겠대. 어떻게 존중해주면 좋을까? ~이는 친구작품을 칭찬해주면 좋을 것 같대. ~이도 존중을 받아본 경험이 있니? 그럼 선생님이 약속판에 존중하기를 적어줄게(적어주는 모션) 이 약속판은 잘보이는 곳에 걸어둘게, 또 활동을 하다가 필요한 약속이 있으면 같이 만들어보자 (여기서 무엇인가를 막 적으시더라고요.)

--~이는 어떻게 포스터를 꾸미고 싶니? 글씨를 먼저 쓰고~ 책상 그림을 그리고 싶다고? 어떤 글씨? 책상밑으로 ! 라는 글씨? 그런데 밑으로 할 때 밑을 어떻게 쓸지 모르겠다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옆에 ~이가 그러는데 언어영역에서 '밑'이라는 글자를 보았대, ~아 ~이가 언어영역에서 같이 살펴보자고 하는데? (유아간/환경간 상호작용)

--~이는 ~게 표현해주고 있구나~ 정말 어서 피해야 할 것 같아! 어서 피하라고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다고~(그림에 대한 상호작용)

-여기서 감점받은 원인은 제가 활동설명을 구체적으로 하지 못했던것에 많이 받은 것 같아요. 나와서 생각해보니 활동을 설명 안한거 있죠.. 이때 얼마나 절망적이었던지... 내 머릿속에만 맴돌고 입밖으로 표현하지 못한 제가 생각하기엔 전 수업나눔에서 커버한거 같아요. 여러분 정신차리고 하셔야 합니다.!

-무릎위에 구상지를 놓고 수업을 하다가 교실을 돌아다니기 위해서 구상지를 의자에 올려두었어요. 그리고 다시 돌아와 미술영역인척 앉았는데 그 종이를 무릎위에 올릴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냥 보지 말자 싶어서 바로 종이위에 앉아서 수업을 했네요.^^

#수업나눔

1. 수업목표가 잘 반영되었는지 이야기 하고 반성적 성찰을 하시오.

먼저 제가 수업 목표중에서 ‘유아의 흥미를~~’(목표가 잘기억나질 않네요.) 이 부분의 목표에 대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이 목표를 위해서 저는 수업에 지진대비 훈련에 관심이 없던 유아가 흥미롭게 하기 위해서 자유선택시간에 아이들이 활동하는 모습을 보며 관심을 갖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너무 유아중심의 활동으로 치우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안전에 관련된 것은 아이들의 생명과 직결되어있기 때문에 교사가 어느정도 주도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는 안전 지도를 할 때 이 부분에 대해 스스로 안전 장학자료 등을 보면서 확인하겠습니다. 더불어 현장에 가셔도 계속 고민이 된다면 동료선생님들께 여쭙보기도 하면서 고민을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 수업에서 배움이 일어난 것과 유아의 삶과 연계되도록 사후활동을 계획하시오.

저는 지진대피송 만들기를 하겠습니다. 미아예방송처럼 아이들과 함께 만들어본다면 아이들이 흥미를 갖고 안전교육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멜로디를 이용하여 아이들과 만들어본다면 아이들도 쉽게 따라부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은 실제로 지진이 일어났을 경우 아이들이 오랫동안 생각하지 않고 바로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들면 멈추기, 생각하기, 책상밑으로~~ 와 같이 만들겠습니다. (노래부르면서 했어요..ㅠㅠ 아마 이점에서 간절함이 보이지 않았나 싶네요. 항상 예를들어 설명하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바로 툭 튀어나와서 망설이다가 노래까지 불렀네요.....하하)

3. 수업을 구상하면서 고민했던 점, 어려웠던 점, 수업을 통해 배운점, 이를 동료교사와 나눌 방법을 말하시오. (저는 첫 번째 질문에서 동료교사에게 여쭙보겠다 라고 대답을 했기 때문에 평가위원께서 ‘선생님이 앞에 말하신 동료와 나눌방법을 말해주세요. 라고도 덧붙여주셨어요.)

(이 질문도 너무 길어서 기억하기가 어려웠어요.. 꼭 질문지 펼쳐보세요!)

저는 앞서 말씀드린 안전지도와 교사의 직접적 교수에 관련한 점이 고민이었습니다. 따라서 선생님들과 수업나눔을 하겠습니다. 아이들과 안전교육을 하는 과정에 대해 선행교사의 수업도 보고, 저의 수업을 보면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더불어 수업을 단순하게 보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수업을 하는 중간에 동영상을 촬영하겠습니다. 동영상의 초점은 교사의 얼굴이 아닌 유아의 모습을 찍겠습니다. 수업이 끝난 이후에는 동영상을 보며 아이들의 눈빛, 표정, 태도를 확인하면서 어느 부분에서 배움이 시작되었는지(경기교육을 강조하며 했어요.) 그 배움의 시작은 교사의 어떤 발문과 방법이었는지 등을 함께 보며 되짚어 보겠습니다.

-저는 수업나눔을 거의 5분..?도 안되게 짧게 했어요. 평가위원께서 앞에 파일을 열어보라고 하지 않으셔서... 수업목표가 무엇인지 제 기억에 의존해서 대답해야했기 때문이에요.. 이 점이 억울하긴 했지만...ㅠㅠ 선생님들은 꼭 책상위에 파일 열어보세요! 말씀없으셔도 열어보세요!!

-짧게 했어도 수업나눔에서 요구하는 질문에 대해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했어요. 제 생각에 저의 수업실연은 나눔에서 어느정도 커버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왜냐하면 수업실연보다 수업나눔에서 고개를 계속 끄덕여 주시는 것이 느껴지더라고요. (물론 아닌 평가실도 있었어요!)

-저는 수업나눔 연습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그에 맞는 틀을 어느정도 만들어놨어요. 예를 들면 ‘안전’이 나올때 교사주도적인 방법과 유아의 흥미에 대해 고민지점을 말하자 왜냐하면 유아의 생명과 직결되어있기 때문에! 이런식으로 기본 틀을 만들어놓았어요. 동료나눔에 대해서도 어떻게 할 것인지 방법을 생각해놔서 자신감을 갖고 대답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자신감은 연습에서 나온다고 생각해요. 많이 연습하세요^^

-여러 선생님들의 질문을 받았어요. 다른 분들과 함께 공유해보면 좋을 것 같아 올립니다.^^

집중이 안되거나 슬럼프가 왔을때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저는 재수였어요. 4월까지의 마음이 아파서 그런지 몸도 많이 아팠어요. 심지어 3월까지도 책만 피면 눈물이 나서 공부할수가 없었죠. 생각해보니 이런 불안은 또 공부하면 뭐하나 떨어질것 같은데... 라고 생각해서 그런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떨어지면 또하지 뭐 걱정하지 말자 나중에도 떨어지면 걱정하던 시간이 아까울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운동으로 요가를 했어요. 덕분에 슬럼프가 왔어도 내가 좋아하는 운동을 하니 그 시간만큼은 멘탈이 회복되더라구요. 슬럼프가 왔을 때는 좋아하는 것을 찾아보세요. 그 시간만큼 나에게 상을 주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고 나머지 시간에 공부를 더 열심히해야지! 했던것 같아요.^^

재수에게 조언 부탁드립니다.

- 1.강의를 다시듣고 있는 데 모르는 거 위주로 공부하고 암기 하였는지 궁금합니다.
- 2.그리고 대부분의 암기는 언제쯤 마무리되었나요?
- 3.1~6월 개론. 각론시기의 복스방법이 궁금합니다.
- 4.지도서 읽을 때 중점으로 어떤걸 보셨나요?
- 5.2차준비 이것만은 미리하라고 하고싶은 것이 있나요?

★1.강의를 다시듣고 있는 데 모르는 거 위주로 공부하고 암기 하였는지 궁금합니다.

-아니요. 저는 재수할때 안다, 모른다로 나누지 않고 아는 것도 다른 강사님으로 들으니 다르게 이해하게 되고 안다고 생각했던 것도 몰랐던거였더라구요. 그냥 초수의 마음으로 시작했어요.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차곡차곡 해나가시면 될거예요.^^

2.그리고 대부분의 암기는 언제쯤 마무리되었나요?

암기는 시험전날까지 했어요! 암기의 시작은 7월부터 시작했고, 이때 구술스터디를 통해서 했어요!

3.1~6월 개론. 각론시기의 복스방법이 궁금합니다.

개론만 공부하던 시기 오전-예습 오후-복습 저녁-운동후 인강

개론&각론 같이 시작하는 시기: 오전-개론 오후-각론 복습 한 후 오늘 공부할 것 예습 저녁 운동 후 인강듣기(예습한것)

4.지도서 읽을 때 중점으로 어떤걸 보셨나요?

-저는 지도서를 문제 만들기로 활용했어요. 지도서를 '본다'기 보다 주제-소주제가 나올 때 목표에 맞게 어떻게 활동을 이끌어갈수 있을지 계획해보고 연습하고, 지도서 내용을 보면서 지도서는 어떻게 풀었나? 정도로 보았어요.

5.2차준비 이것만은 미리하라고 하고싶은 것이 있나요?

-2차 준비.. 하지마세요. 라고 하고 싶어요. 저 초수때 듣던 강사님이 1차 공부시기에 2차도 같이 준비해주셨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2차준비는 1차 끝나고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몰입도 1차 끝나고 하는것이 더 집중될거예요.

이 공부는 선택과 집중이라고 생각합니다. 1차 보는 시기에 1차공부에 집중하시고, 1차가 끝난 뒤에 2차에 집중하셔도 늦지 않아요!

<p>1.혹시 단권화를 하셨나요 ? 안하셨다면 어떤 책을 보고 요약 암기하셨나요 ?저는 웹지도를 보려는데 7월되야 나와서 그때 암기하기엔 제가 실습을 가서 시간이 부족할꺼같아요 ㅏ</p> <p>2.서술형 답을 쓸때 어느정도 답이 길어야할지감이 안잡혀요 핵심키워드만 있으면 맞다고 해주겠조 ? 예를들어서 계열성 설명으로 ->교육내용을 심화,확장하는 것이다 이렇게만 써도 될까요 ?</p> <p>3.논술배점이 바뀌서 본론이 너무 길어졌어요 논술내용에서 해결방안을 묻는 질문에는 근거를 안적어도될까요 ? 그냥 해결방안만 쓰면될까요 ?</p> <p>★1. 저는 민쌤 개론 각론을 줄글로 계속 보았어요. 마지막엔 종이를 반절로 잘라서 나름 시험장이서 볼것을 요약했어요. 실습나가서 웹지도 보세요. 지금 암기하시면 기초가 탄탄하지 않아요. 지금은 하나하나 다듬어 가시면서 이해해 나가시고 개념을 위주로 눈에 익혀주세요. 오늘 공부한 개념을 보시고 어떤 내용이지? 상위범주,하위범주가 무엇인지 떠올리면서 공부하세요^^</p> <p>2. 서술형 답안은 평소 공부하면서 어떤 내용이 키워드로 들어가야할지 같이 공부했어요.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질문한것 처럼요^^ 그래서 개념이 있다면 그 부분은 파랑색 형광펜, 볼펜등으로 눈에 잘 띄게 해놨어요^^</p> <p>3. 논술에서 해결방안에 대한 근거를 적어주세요. 지금부터 연습하세요! 간단하게 한줄이라도 적으셔야 채점에 포함될거예요! 중요한 내용을 최대한 간결하게 적으시면서 최대한 포함되도록 노력하셔야 되요^^ 논술 채점 기준이 이번에 ... 아리까리해서..일단 요구한건 다 써야 안전하게 되실거예요^^</p>	<p>저는 지금 제 공부방법을 찾고 있는데..합격수기들을 다 읽어보아두 도무지 저한테 맞는 방법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인강을 듣고 정리하고 외우는 식으로 했었는데 외우는게 처음에는 잘 외워지다가 점점 저한테 벅차더라고요...그래서 놀이, 교사론 부터 머릿속에 정리가 안되구 사상사도 머릿속에서 떠나려구하고...그래서 매주 인강을 꼬박 꼬박 잘 듣구 있었는데 그냥 미뤄지더라두 다시 사상사부터 공부하자 하면서 이해 안되던 놀이부터 책을 좀 읽고 이해를 하고 외워볼까 이런식으로 바꾸려고 하고 있어요...괜찮을까요ㅏㅏ쌤은 그리구 언제 일어나셔서 몇시까지 공부하시구 그러셨나요ㅏㅏ★저도 시험까지도 제 공부방법에 확신은 없었어요! 정말 이방법 저방법 다 해봤어요. 이방법이 내 방법이다!! 라는 느낌은 하면서도 몰입이 된다면 자신만의 방법일거예요. 지금은 외우는데 힘을 쏟기보다 차근차근 이해하고 정리해나가세요. 초반에 기초를 탄탄하게 하면 암기하는데 어렵지 않아요. 또 저는 아침에 일찍일어나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잘 안되더라고요... 8시에는 도서관 도착이 목표이긴 했어요. 하지만 여기에 너무 집착하지 않고 늦게 일어날때는 내가 늦은만큼 오늘 공부에 더 집중하고 몰입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시간을 정하지 않고 오늘 목표공부를 정하고 몰입하여 정해진것 다 하면 집에 갔어요. 시간이 아니라 목표요. 선생님 중요한건 몰입하려고 스스로 노력하는것이요. 몰입하자 몰입하자 자신에게 주문을 걸어보세요^^ 시간을 중점에 두면 내가 몰입하는 것보다 시간에.집착하게 되요. 시험장에서 내가 몇시간 공부한건 통하지.않아요. 열심히 한 사람보다 잘한사람이 합격하더라고요.</p> <p>그리고 앞에꺼가 기억에 나지 않아서 멈추고 다시 되돌아가지 마세요! 지금 개론을 한번 돌리는데 오래걸리고 힘들지만 여러번 읽다보면 이해 속도도 빠르고 나중엔 암기에 집중하시게 될거예요! 특히 여름 이후에는 암기를 위해서 개론 전체를 주기별로 돌리게되요. 절대 조금해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순서대로 나가세요. 그리고 개론 각론을 반복하시면 암기는 저절로 되요^</p>
<p>전 지금 초수인데 강의도 잘 이해가 안가고 그래서 뭔가 손을 놓아버린 느낌이에요. 이해가 가야 다음으로 넘어가는 성격이라 지금 2주치 강의가 밀렸는데 앞부분부터 복습을 다시 하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복습을 해야 하는지 막막하고 혹시 강의가 안맞나 답답하기도 하네요. 쌤은 복습을 어떤 식으로 하셨나요?</p> <p>★초수때 그러는건 당연한거예요. 제가 초수때 했던 최대의 실수는 이 시기에 답답함을 이기지 못하고 무작정 외우는거였어요. 선생님 지금 하고 계신게 맞아요. 다음으로 넘어가지 마시고 이해 되고 넘어가세요. 2주치 강의 밀리는 정도는 괜찮아요. 차분하게 하나하나 '내것'으로 만들고 넘어가셔야 해요. 저는 예습하고 강의듣고 복습했어요. 오전에 복습 오후에 예습 저녁먹고 강의 듣기 이런식으로 2월에 했어요. 절대 다급하게 공부하지 마세요!</p>	<p>저도 초수인데...강의 듣고 계속 복습하는데 교사론 할때쯤 되면 발달쪽이 기억이 안나서 너무 불안하네요ㅏㅏ 암기를 병행 하면서 해야하는건지 아니면 계속 이해위주로 해야하는건지 고민입니다</p> <p>★앞에 내용이 기억에 나지 않아서 멈추고 다시 되돌아가지 마세요! 지금 개론을 한번 돌리는데 오래걸리고 힘들지만 여러번 읽다보면 이해 속도도 빠르고 나중엔 암기에 집중하시게 될거예요! 이건 7월정도 되면 속도가 불기시작한다는걸 느끼실거예요. 지금은 잘 느껴지지 않아요. 그리고 여름 이후에는 암기를 위해서 개론 전체를 주기별로 돌리게되요. 절대 조금해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순서대로 나가세요. 그리고 개론 각론을 반복하시면 암기는 저절로 되요^^</p>
<p>저는 초수인데.. 논술이 너무 어렵네요ㅏㅏ 어렵다기 보다는 항상 글을 쓸 때 분량이 넘쳐서 걱정이예요.. 쓸말이 왜그렇게 많은지..ㅏㅏ 논술 공부는 따로 어떻게 하셨나요!?</p> <p>저는 초수때 논술을 너무 많이써서.. 재수할때는 6월부터 했어요. 첨엔 스테디구해서 침착하기도 했는데 매번 워드로 올리기도 귀찮아서 나중엔 혼자 써보고 빨강펜들고 내가 채점관이라면 어떤거에 감점을 줄지 생각하면서 혼자 채점했어요. 분량이 넘친다는건 미사여구가 많다는거예요. 한줄안에도 문제가 요구하는것이 무엇인지 어떤 문장으로 표현할지 생각하셔야되요. 논술은 연습뿐이에요..여러 논제 구하셔서 연습과 채점^^ 지금부터 너무 많이쓰면 나중에 손목 아프시니까 일주일에 한개만쓰셔도 되요^^</p>	<p>시험전날잠은잘주무셨는지 불안은 어떻게극복하셨는지 궁금해요</p> <p>저는 정말 소심하고 심하게 불안해서 평소실력보다 실전에 망하는(?)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재수때는 마음편하게 하려고 했어요. 다만 평소엔 미친듯이 하고 시험전날 저녁부터는 마음을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계속 주문걸었어요. 나 이상하게 하나도 안떨리네 이상하다 정말 안떨리네 라고요. 그리고 2주전부터는 자기전에 이미지메이킹 했어요. 시험장에서 내가 문제를 술술 풀고있는 모습이요. 그고 모르는 문제가 나와도 당황하지 않고 웃어넘기기를 그렸어요^^ 스스로에게 계속 주문을 걸으세요!</p>